

유럽 전략기술 플랫폼(STEP) 주요내용

KDB미래전략연구소 미래전략개발부
김새롬 (romitheworld@kdb.co.kr)

- ◆ EU집행위는 '24년 3월부터 11개 EU 프로그램을 통합·조정하여 유럽 내 핵심기술 개발·제조를 지원하는 플랫폼(STEP)을 운영
- ◆ STEP은 핵심기술 관련 프로젝트를 선정하여 보조금·대출·투자 등의 형태로 지원하고 STEP Seal 부여 및 Portal 홍보를 통해 민간투자를 유도하는 역할을 수행

□ EU집행위는 유럽 내 핵심기술 육성을 위해 기존의 11개 EU 프로그램을 활용한 유럽 전략기술 플랫폼(STEP)*을 '24년 3월부터 시행

* [Strategic Technologies for Europe Platform](#)

- EU집행위는 유럽 내 핵심기술(critical technologies)의 개발 및 제조 단계 지원, 가치사슬 보호·강화, 노동력과 기술 인력 부족 문제 해소를 위해 STEP을 도입
 - 유럽 내 혁신·최첨단 요소를 도입하거나 EU의 대외 의존도를 축소할 수 있는 기술을 핵심기술로 간주
 - STEP의 지원대상은 ❶디지털·딥테크 기술, ❷청정·자원효율기술, ❸바이오기술이며 기술 변화 등에 따라 유연한 운영을 하기 위해서 구속력이 없는(non-exhaustive) 형태로 제시
- 기존의 EU 프로그램을 통합·조정하고 단일창구(One-Stop Shop)로서 전략기술에 대한 민간 투자를 촉진하고 다양한 금융수단을 패키지로 지원
 - 새로운 프로그램 신설 없이 기존 11개 EU 프로그램(그림 참고)의 재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공동 목표를 설정하고 별도 조직(STEP Task Force)을 통해 관리
- 기존 프로그램 재원 재분배 및 예산(MFF)* 추가할당 등을 통해 총 165억 유로의 재정을 투입('25.3월 기준)하여 최대 1,600억 유로 규모의 투자 유발 기대
 - * [Multiannual Financial Framework](#), EU는 예산 운용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통상 7년 단위 중장기 예산 계획(MFF)을 수립하고 있으며, '24.2월 MFF('21~'27) 경정을 통해 STEP 관련 내용 반영
 - EU 직접운영 프로그램과 결속정책(Cohesion Policy)* 기금 재배분을 통해 STEP 운영에 총 150억 유로 이상 재정투입
 - * [EU 회원국 간 경제·사회·지역 격차를 줄이고 균형 있는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재정정책](#)
 - MFF 경정을 통해 STEP 예산으로 15억 유로 추가 배정

□ 동 플랫폼은 STEP 목표에 부합하는 지원대상을 선별하여 기존 EU 프로그램을 통해 보조금, 대출, 투자 등 금융 지원

- EU집행위는 EU 직접운영 프로그램*에 STEP 전용 보조금 공모를 개설하여 1년 1개월(‘24.3월~’25.3월)간 60건의 공모를 통해 52억 유로 지원

* EU집행위가 직접 관리하는 프로그램을 의미하며, 주로 보조금 형태로 자금 지원

- 동 공모에 신청하는 프로젝트 중 선별 기준*에 따라 보조금 및 STEP Seal 부여

* ①STEP 목적에 부합, ②관련 EU 프로그램 최소요건(자격요건, 제외 요건, 평가 요건) 충족

- STEP Seal* 취득시 6개 EU 공동·간접운영 프로그램**에 대한 Fast Track을 부여하고 5개 직접운영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심사 간소화

* EU집행위에서 부여하는 품질라벨으로, EU프로그램으로부터의 자금 조달을 용이하게 하고 STEP Portal에 공개하여 민간투자자 유치가능성 제고

** 회원국 정부 및 정책금융기관(EIB 포함)을 통해 EU 자금이 집행되는 프로그램

- Fast Track 제도를 통해 지원대상 선정 절차 간소화, InvestEU 관련 대출·투자 신속 검토 등 효율적 자금 지원 가능

STEP 관련 EU 프로그램



자료 : EU집행위 홈페이지

□ EU는 STEP을 통해 기술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여 전략기술의 효과적인 지원과 함께 민간 후속 투자를 촉진하는 기반을 마련

- STEP은 지원대상을 유연하게 정의하는 등 기술·통상·지정학적 환경 변화에 신속 대응하는 형태로 운영
- 또한, 여러 지원 프로그램을 통합·조정하는 단일창구화를 통해 집행 효율성을 높이고 프로젝트 인지도 및 신뢰를 제고함으로써 민간의 후속 투자를 촉진